

SIES 제6차懇談會

(2017. 06. 09)

‘가계부채의 실태와 정책과제’

배영목 교수, 충북대학교

가계부채의 실태와 정책과제

배영목(충북대)

- I. 가계부채의 범위
- II. 가계부채의 추이
- III. 부채가구의 실태
- IV. 가계부채의 부실위험 실태
- V. 가계부채의 정책과제

I. 가계부채의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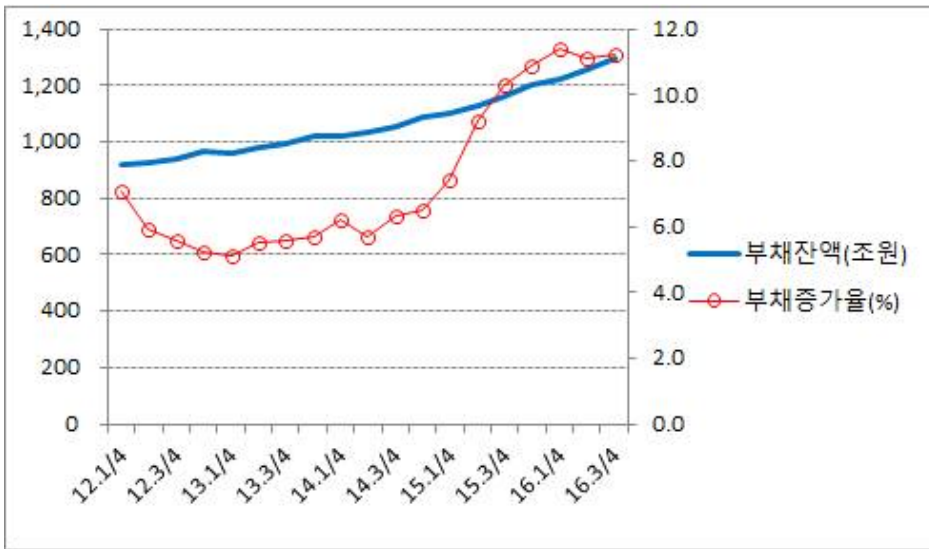
- 가계부채란 각 가구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
- 미시경제적 가계부채의 범위(가계금융복지조사)
 - 부동산 임대로 인해 발생한 임대보증금
 - 가계의 차입으로 발생한 금융부채
 - 금융부채에는 담보대출, 신용대출, 신용카드관련대출 외상 및 기타부채.
 - 기타부채에는 갯돈 미불입금 등이 포함
- 거시경제적 가계부채의 범위
 - 개인(가계)부문의 다른 부문(금융기관, 판매회사 등)에 대한 부채. 개인간 부채는 제외
 - 가계부채=가계신용+개인사업자와 비영리단체의 부채
 - 가계대출=예금부채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+비은행예금취급기관 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+기타금융기관(보험, 연금, 여신전문금융기관 등) 대출
 - 가계신용=가계대출+판매신용(신용카드회사, 할부회사, 백화점, 자동차 회사 등)

II. 가계부채의 추이

○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증가율도 상승하다 최근에 정체

- 가계신용은 2016년 말 1,344조원, 가계대출은 1271조원으로 증액
- 가계신용 명목증가율도 계속 높아져 2016년에는 10% 이상으로 증가

<표 1>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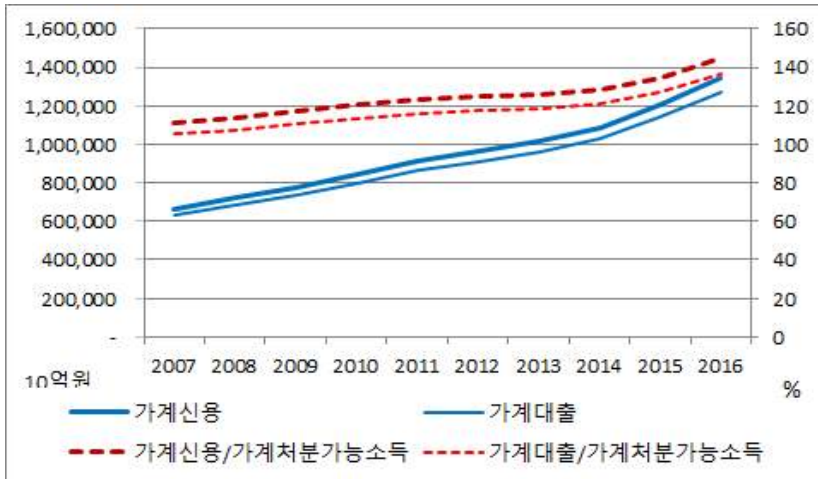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, 금융안정보고서(16.12)

○ 가계의 상환부담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음.

-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가계신용/가계 처분가능소득의 비율은 2007년에는 111.1%이었으나 2016년에는 144.6%로 크게 증가
- 가계부채 상환부담 지표를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은 가계부채/가계처분가능소득이 높은 편임
- 특히 그 증가율이 OECD 평균은 1.6%인데 한국은 19.9%로 매우 높음.

<표 2> 가계신용 및 가계대출 잔액과 상환부담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

<표 3>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및 상환부담 변화율(2014년 기준)

| | 가계부채 /처분가능소득 | 금융부채 /금융자산 | 가계부채/처분 가능소득 변화율 | 금융부채/금융 자산 변화율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그리스 | 112.4 | 49.1 | 27.1 | 1.5 |
| 네덜란드 | 273.6 | 38.4 | -0.7 | -10.8 |
| 노르웨이 | 223.9 | 74.3 | 16.3 | -0.3 |
| 덴마크 | 315.3 | 46.8 | -24.2 | -18.3 |
| 독일 | 93.6 | 30.6 | -5.8 | -5.8 |
| 미국 | 113.4 | 20.7 | -21.9 | -10.3 |
| 벨기에 | 111.9 | 21.0 | 22.1 | 0.7 |
| 스웨덴 | 173.4 | 31.8 | 13.9 | -5.7 |
| 스위스 | 197.4 | 34.3 | 17.0 | -0.1 |
| 스페인 | 128.0 | 40.8 | -22.1 | -15.9 |
| 슬로바키아 | 62.3 | 48.3 | 19.8 | 4.5 |
| 슬로베니아 | 57.6 | 31.8 | 4.1 | -1.5 |
| 에스토니아 | 83.7 | 37.0 | -17.5 | -20.8 |
| 영국 | 155.7 | 28.6 | -22.5 | -10.0 |
| 오스트리아 | 89.1 | 28.6 | -1.1 | -4.1 |
| 이탈리아 | 90.1 | 23.3 | 8.5 | 0.5 |
| 체코 | 68.9 | 30.7 | 10.1 | -2.5 |
| 포르투갈 | 140.8 | 43.2 | -8.1 | -8.3 |
| 폴란드 | 59.5 | 38.6 | 8.0 | -3.2 |
| 프랑스 | 104.7 | 29.8 | 6.1 | -3.7 |
| 핀란드 | 126.7 | 51.4 | 9.6 | -5.3 |
| 한국 | 164.2 | 44.9 | 19.9 | -6.1 |
| 헝가리 | 54.4 | 24.0 | -21.7 | -16.5 |
| OECD 23개국 평균 | 130.5 | 36.9 | 1.6 | -6.2 |

○ 자료: 한국은행, 금융안정브리핑
○ 가계부채의 주요부분은 주택담보 대출이고 그것도 은행대출임. 그러나 최근에는 그 구

성이 변화. 비은행대출이 비율이 증가

- 가계대출의 45% 정도는 주택담보대출이고 그 비중이 줄고는 있지만 은행이 35%를 담당.
- 가계대출은 은행이 60% 정도까지 취급하였으나 그 비중이 줄어 50% 수준으로 하락. 최근에는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비중이 증가(풍선효과?)
- 판매신용은 대부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임.

○ 가계부채의 증가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인한 것임. 최근에는 기타 가계대출도 증가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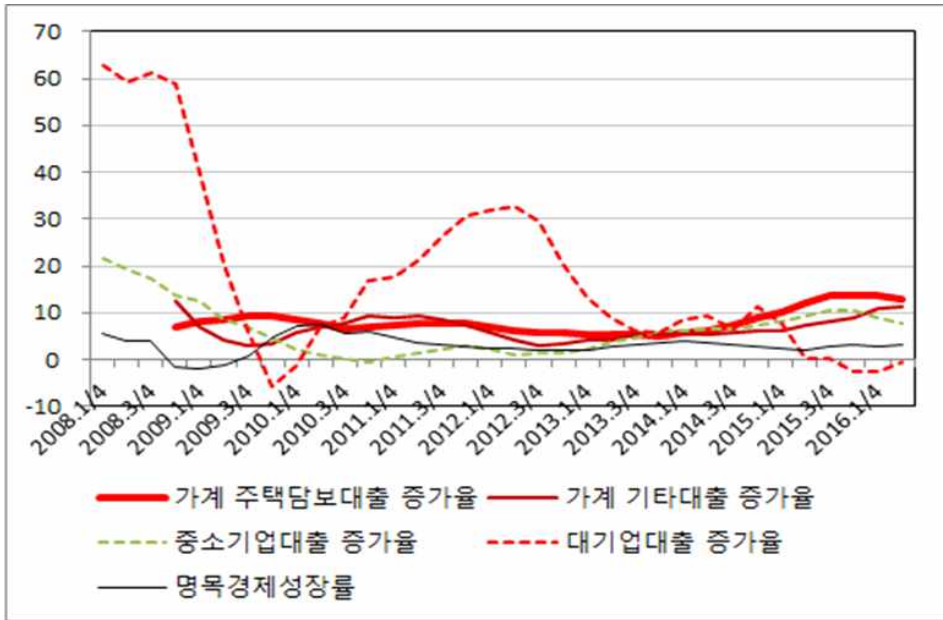
- 대기업대출 증가세는 급감하고 중소기업대출은 증가세가 강화
- 가계대출은 기업대출 증가세를 압도하고 명목경제성장률도 압도

<표 4> 가계부채의 구성비율 추이

| | 가계대출 구성비율(%) | | | 주택담보대출 비율(%) | | 판매신용중 여신전문기관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은행 | 비은행 | 기타 | 전체 | 은행 | |
| 2007 | 57.7 | 17.5 | 24.8 | 46.5 | 39.0 | 97.4 |
| 2008 | 56.8 | 18.5 | 24.6 | 45.5 | 37.3 | 98.1 |
| 2009 | 55.8 | 19.1 | 25.1 | 46.1 | 37.3 | 98.2 |
| 2010 | 54.4 | 20.4 | 25.2 | 45.7 | 36.5 | 98.0 |
| 2011 | 52.9 | 21.3 | 25.7 | 45.5 | 35.9 | 98.1 |
| 2012 | 51.6 | 21.3 | 27.2 | 44.6 | 35.1 | 98.1 |
| 2013 | 50.1 | 21.5 | 28.5 | 43.5 | 34.2 | 98.0 |
| 2014 | 50.7 | 22.1 | 27.2 | 44.9 | 35.7 | 98.3 |
| 2015 | 49.5 | 21.8 | 28.6 | 44.0 | 35.3 | 98.4 |
| 2016 | 48.6 | 22.9 | 28.5 | 44.1 | 34.8 | 98.5 |

자료: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

<그림 2>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증가율 명목경제성장률의 추이



Ⅲ. 부채가구의 실태

○ 어떤 가구가 차입(금융부채)가구인가?

<표 5> 가계금융복지조사 부채가구의 비율(2016년)

| | | 부채 가구 | 금융 부채 | 담보 대출 | 신용 대출 | 신용 카드 | 임대 보증금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전체 | | 64.5 | 57.7 | 39.6 | 22.9 | 5.6 | 16.5 |
| 성별 | 남자 | 69.2 | 61.9 | 43.5 | 24.8 | 5.5 | 18.3 |
| | 여자 | 48.2 | 43.4 | 26.1 | 16.4 | 5.7 | 10.1 |
| 연령대 | 30세미만 | 44.5 | 43.6 | 22.0 | 19.7 | 3.6 | 2.2 |
| | 30~39세 | 71.3 | 68.6 | 45.7 | 27.6 | 5.3 | 8.8 |
| | 40~49세 | 75.9 | 71.8 | 51.3 | 31.0 | 8.4 | 15.0 |
| | 50~59세 | 71.5 | 65.1 | 44.9 | 26.4 | 6.9 | 8.9 |
| | 60세이상 | 47.5 | 35.8 | 24.0 | 11.5 | 2.5 | 20.5 |
| 교육 | 초졸이하 | 34.7 | 27.8 | 18.1 | 9.4 | 2.1 | 10.4 |
| | 중졸 | 57.0 | 47.9 | 31.7 | 15.4 | 4.9 | 16.7 |
| | 고졸 | 69.8 | 64.2 | 43.3 | 25.1 | 8.1 | 14.8 |
| | 대졸 | 73.3 | 66.2 | 46.7 | 28.2 | 4.8 | 20.3 |
| 주거 | 자가 | 70.8 | 61.8 | 49.6 | 21.6 | 4.1 | 21.2 |
| | 전세 | 62.7 | 57.5 | 32.9 | 26.3 | 5.9 | 14.4 |
| | 월세 기타 | 47.4 | 45.8 | 16.7 | 23.5 | 9.6 | 4.6 |
| 종사상 지위 | 상용근로자 | 72.8 | 67.3 | 46.7 | 27.6 | 5.0 | 16.6 |
| | 임시일용 근로자 | 54.5 | 51.2 | 30.3 | 17.7 | 8.9 | 8.7 |
| | 자영업자 | 73.6 | 67.5 | 49.3 | 28.9 | 7.1 | 18.7 |
| | 무직 | 42.2 | 30.0 | 18.6 | 9.2 | 3.0 | 18.1 |
| 소득 분위 | 1분위 | 31.8 | 26.0 | 14.5 | 9.2 | 3.3 | 7.6 |
| | 2분위 | 60.1 | 53.8 | 32.7 | 19.1 | 7.6 | 11.4 |
| | 3분위 | 72.3 | 67.1 | 46.4 | 26.0 | 7.9 | 13.3 |
| | 4분위 | 77.1 | 70.2 | 49.8 | 29.4 | 5.4 | 19.0 |
| | 5분위 | 80.9 | 71.5 | 54.5 | 30.9 | 3.7 | 30.9 |

- 부채가구는 2016년 기준으로 64.5%이지만 금융부채 가구는 57.7%임. 금융부채

가구 중에서 담보대출 가구는 39.6%, 신용대출 가구는 22.9%, 신용카드 대출가구는 5.6%, 임대를 한 가구는 16.5%임

-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 로 감소.
-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차입가구 비율이 높음.
- 자가, 전세, 기타 순으로 금융부채 가구 비율이 높음. 신용카드 대출은 그 반대.
-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차입가구 비율 높음. 1분위 26.0%, 2분위 53.8% 3분위 67.1%, 4분위 70.2%, 5분위 80.9%
- 가구주가 고용이 불안정한 무직, 임시일용근로자의 차입 비율이 높음.
- 소득분위별, 종사상지위별 차입비율 차이는 안정적. 소득간 고용유형별 금융격차가 존재.

○ 금융부채 가구의 차입액 결정요인(배영목 2016.2)

- 연령이 많을수록 늘어나지만 대략 42세 이후부터 감소
- 가구원이 많을수록
- 가구주가 미취업상태일수록 감소
- 가구주의 소득이 많을수록
- 실물자산 보유액이 많을수록
- 소득이 적을수록 줄어들지만 1분위가 될 때 가장 많이 줄어듦.
- 부동산담보대출, 기타담보대출, 신용대출, 외상,갯돈, 신용카드대출 순으로 차입액이 증가

○ 가계의 주요 차입동기(2016년 담보 및 신용대출 기준)

- 거주주택 구입 37.1%, 사업자금 마련 23.5%, 기타 부동산 마련 16.1%, 전월세보증금 마련 7.2%, 기타생활비 6.2% 부채상환 3.4%, 기타 5.6%

○ 계층별 주요 차입동기

- 고소득층일수록 주택구입이나 기타 부동산투자를 위한 차입이 많음.
- 저소득층일수록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차입이 상대적으로 많음
- 임시일용근로자, 미취업자는 생활비 마련이 주요동기

IV. 가계부채의 부실위험 실태

- 가계부채가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 과도한 경우 상환부담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상환불능(insolvency)에 이르고 채무불이행(연체)으로 현실화

○ **상환부담 지표**

- 금융부채 가구의 현재의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: 총부채상환비율: DSR(연상환액/가처분소득) 통상 40%를 기준으로 과부담 가구 판정
- 금융부채 가구의 미래의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: DTI (금융부채 /가처분소득) 통상 300%를 기준으로 과부담 가구 판정
- 상환능력에 해당하는 총자산과 비교한 총 부채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: DTA(총자산/총부채)
- 금융기관은 대출액과 담보자산가치를 비교한 담보인정비율 LTV(Loan to Value)를 활용. 통상 60-70% 범위내에서 대출. 이 임계치를 넘어서 대출하거나 허위담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됨.

○ 한국은행 **HDRI(가계부실위험지수)**

$$\{1+(DSR-0.4)\} * \{1+(DTA-1.0)\} * 100$$

100이 넘으면 부실위험가구로 판정

⇒**임계치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미비**

○ 가계부채 부실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?

- 한국은행의 **HDRI(가계부실위험지수)**
-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상환불능 응답
- 가계금융조사의 연체 응답
- DSR, DTI, DTA, LTV 중 어떤 지표? 각 지표의 임계치는?

○ 가계부채 부실위험 가구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1

- 상환불능 응답여부를 지표를 한 분석
- 가구원이 많을수록, DTI, DTA 기준으로 고부담 가구일수록, 자금용도로는 부채상환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차입한 가구일수록, 실물자산, 금융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상환불능 가구가 될 확률이 높음. 그러나 소득은 다소 유의성이 낮음(배영목 2014.6)
- 미취업자, 임시일용금로자 등의 상환불능 위험은 매우 큼.,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, DSR, DTI, DTA 기준으로 과부담가구일수록 상환불능가구일 확률이 높음. 다른 변수가 통제될 경우 고용유형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음(배영목 2015.9).

○ 채무불이행 위험가구 비율의 추이

<표 6> 채무불이행 위험가구의 유형별 비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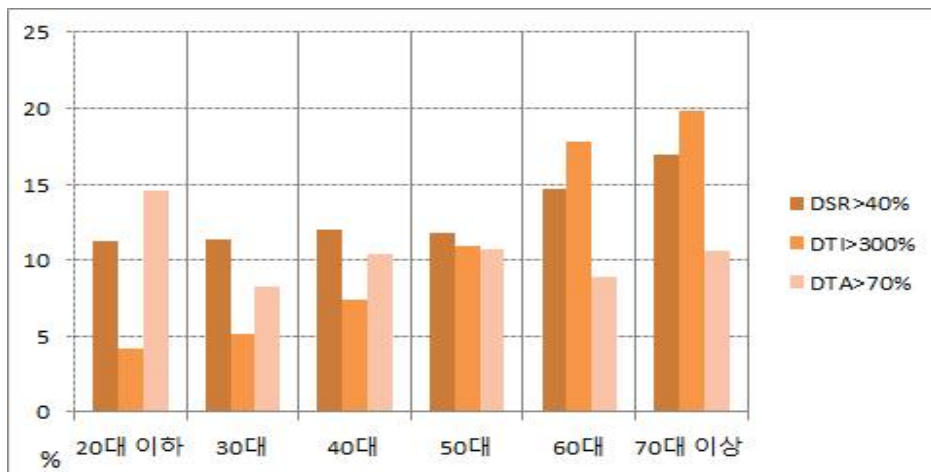
| 판정기준 | 비율: %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
| D1(상환불능가구) | 7.1 | 8.0 | 6.7 | 7.0 |
| D2(연체가구) | 15.2 | 16.2 | 15.1 | 13.6 |
| D3(HDRI≥100(%)) | 6.6 | 7.7 | 5.7 | 7.9 |
| D4(DTA≥100(%)) | 5.8 | 5.3 | 5.5 | 5.4 |
| D5(DSR≥40(%)) | 19.8 | 23.8 | 18.5 | 31.0 |

자료 : 배영목(2016.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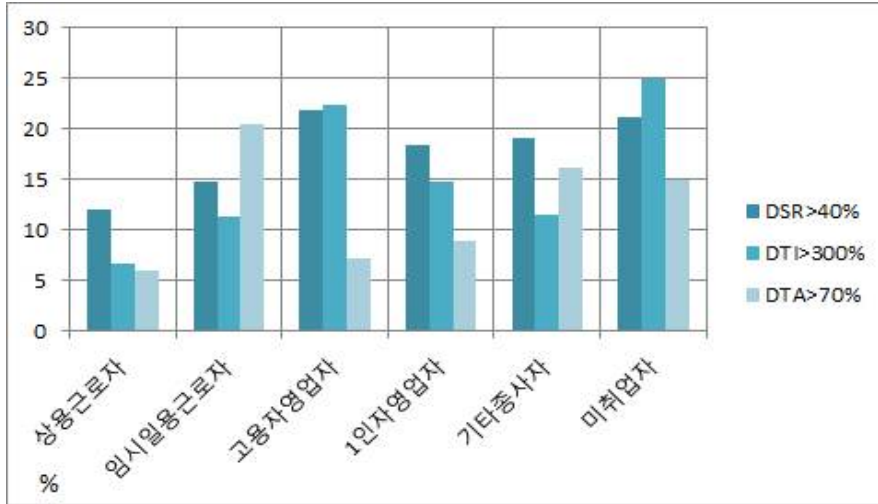
○ 가계부채 부실위험 가구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2

- 상환불능가구, 연체가구, 과부담가구(HDRI≥100(%))를 기준으로 한 위험가구 결정요인 분석
- 가계부채 부실위험가구가 될 확률은 가구주의 성과는 관계없고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지지만 일정연령 이후 다시 낮아지고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아질수록 차가에 거주할수록,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높아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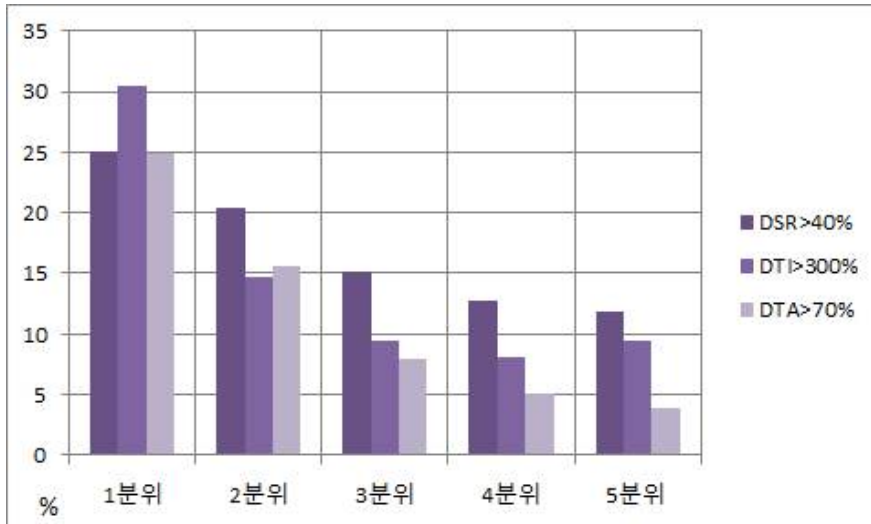
<그림 3> 가구주 연령대별 금융부채 과부담가구 비율(4년 평균)



<그림 4> 가구주 종사상 위치별 금융부채 과부담가구 비율



<그림 5> 가계소득 분위별 금융부채 과부담가구 비율



V. 가계부채의 정책과제

1. 가계부채 증가율 및 상환부담의 완화

○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출규제

- 2002년 9월 담보인정비율(LTV)규제를 도입.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담보가액의 비율 상한을 만기, 가격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용. 40-70% 범위(주로 50%)에서 적용하였으

나 점차 완화 2014년 8월 70%로 일원화

- 2005년 8월 총부채상환비율(DTI)규제를 추가로 도입.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연소득에 대비 일정비율로 제한. 감정가 대출금액, 차입기관에 따라 차등 적용 40-70% 범위에서 적용. 2014년 50% 수준에서 지역별 계층별 차등 없이 60%로 일원화
- 주택담보대출 증가세, 주택가격 완화세 완화에 기여. 비규제 금융기관 주택자금 대출 증가, 기타 부동산대출증가
- 금융기관 만기불일치(대출기한의 연장) - 주택담보대출잔존만기 2010년 11.6년에서 2016.3 17.5년 .
- 유동성 위험 증가, 경기순응적 대출 등은 문제

○ 실효성 있는 거시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

- 가계별 소득, 자산에 상응한 총량 대출기준 제시
- 대출만기 상환가능기간 소득안정성 등을 고려한 대출가이드 라인 제시
- 통화정책기관의 부동산 버블 붕괴 금리인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

○ 실효성 있는 미시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출규제 도입

- 부동산 가격 상승세 마감,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위험 증대에 상응한 자본관리 강화, 대손충당금 증액
- 부동산 가격 상승세 마감,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기관별 부동산 대출 및 위험 한도 관리 강화
-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스트레스 테스트 정례화
예) 금리 3% 인상시 상환불능 위험의 변화

2.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

○ 분할상환, 만료기간의 조정, 고정금리 확대

<표 7> 은행권 연도별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 비율(%)

| | 10 | 11 | 12 | 13 | 14 | 15 | 16 |
|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분할상환 | 6.4 | 7.7 | 13.9 | 18.7 | 26.5 | 38.9 | 45.1 |
| 고정금리 | 0.5 | 3.1 | 14.2 | 15.9 | 23.6 | 35.7 | 43.0 |

자료: 금융위원회

- 분할상환 상품 다양화,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등으로 구분
- 분할상환 선택시 상환가능기간 고려
- 만료기간 연장시 상환실적 등을 고려
- 고정금리, 역모기지 상품의 개발
- 거치기간 단축

○ 가계 재무상태, 상환능력 심사 강화

- 가계별 가구주 연령, 직업, 소득, 자산에 비례한 대출총액한도제 도입
- 자영업자는 높은 위험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심사
- 자영업자 신용평가 모형 개발
- 집단대출에도 신용평가 적용

○ 가계부채 위험관리 지표 개발

- DSR DTI, LTV 실효성 분석
- 상환기간, 상환가능기간, 용도 등을 고려

○ 대출용도 등 사후관리 강화

- 대출금액 대출기한 조정시 자금운용 실적 반영.
- 대출금 취득 자산(부동산, 증권) 담보로 활용
- 사업자금, 부채상환 사용자 유의

3.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적 지원

- 서민금융 대상자 판정기준의 설정
- 취약계층의 생활안정(주택, 교육, 의료)을 위한 기금조성
- 자활을 위한 재정자금 지원
- 서민금융의 상환방법, 기간 및 금리의 정기적 점검 및 조정
- 맞춤형 서민금융 확장

4. 자영업자 관리 및 지원

- 자영업 위험지표의 개발 및 적용
- 자영업자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 지원

- 자영업자 구조조정 펀드 조성
- 자영업자 금융 진단 및 금융개선방안 자문

5. 한계부실가계의 관리 및 처리

- 한계가구 위험지표 개발
 - 부실위험가구 판정 지표 개발
 - 판정기준의 실효성 점검

- 한계가구(연체가구)의 재심사
 - 파산, 회생 가구 심사 강화

- 한계(연체)가구의 채무조정(기간, 상환방법, 이자)
 - 회생가능 가구의 지원 기간, 방법, 조건을 객관화

- 한계가구 부실부채 탕감 및 매각
 - 회생불가능가구 채무 탕감
 - 탕감 대상, 방법, 조건 등을 객관화

- 저소득 한계가구 자활프로그램 도입
 - 저소득 한계가구 소득 증대사업

참고문헌

- 금융위원회(2015.2),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안
- 관계기관 합동(2015.7),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
- 금융위원회(2017.2)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
- 김우영.김현정.김기호(2009), "한국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", 금융경제연구, 제366호,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.
- 김우영.김현정(2010.4), "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", 국제경제연구, 제16권 제1호, 한국국제경제학회. pp.39-78.
- 김현정.손종철.이동렬.임현준.나승호(2013.3), "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", BOK 경제리뷰, 2013-4, 한국은행.
- 배영목(2014.6), "가계 금융부채의 보유 및 상환불능 위험 결정요인", 무역연구, 제10권 제3호, pp.587-600.
- 배영목(2015.9), "가구주 고용유형별 가계부채의 특성과 결정요인" 경제발전연구, 제21권 제3호, pp.1-27.
- 배영목(2016.2), "가계의 소득격차와 가계부채", 경제불평등과 가계부채, 서울사회경제연구소, pp.137-165.
- 배영목(2016.12), "가계부채 채무불이행위험의 결정요인과 지속성, 무역연구, 제12권 제6호, pp.407-421.
- 한국은행(2016),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
- 한국은행, 금융안정보고서
- 통계청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(2016.12),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